

드보라 전도운동

사사기 4:1-10, 사도행전 18:24-28

최정웅 목사님

간밤에 봉투를 하나 받았다. 2년 간 재정을 담당하셨던 주 장로님이 퇴직금을 가지고, 헌당을 위한 70인 주역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현금하셨다. 1억 원이다. ‘헌당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다. 부부가 싸우지 않고, 서로 마음을 합쳐서 현금을 하셨다. 덧붙여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모두 체험하면서,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전을 드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축원한다. 2015년이 저물어간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한 달이 누림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 받을 응답을 준비하는 한 달,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한 달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불행한 소식이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포기해 버리는 사회가 되었다. 30년, 40년 전에는 일본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이 망했구나’ 했는데, 정말 일본이 굉장히 그간 힘들었지 않나?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왜 사람들이 이 시대를 두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는데, 재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도 했고, 우리에게 아픔을 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분은 확실히 민주화를 이룬 분이기도 했다. ‘3김 시대가 빨리 끝나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주장 안 해도 다 흘러가더라. 나는 그때도, ‘그분들 물러간다고 되겠느냐’ 싶었다. 그분들은 깃발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후로는 그런 지도자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소란스럽지 않나 싶다. 참된 지도자가 없으면 사회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위기 만난 시대에 영적인 리더, 진정한 지도자로 세상 살리는 주역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 만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비슷하다. 후대의 영적 상태가 우상숭배 문화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여기에 답을 주는 자가 없으니까 가나안이라는 흑암 세력이 현장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것이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구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재앙이 온 지역에 들어왔다. 이런 위기 시대를 단번에 뒤집은 전도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여사사 드보라였다.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일어나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드보라 같은 지도자가 나라에도,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정말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1. 드보라가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답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전도자 드보라가 시대의 지도자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드보라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드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1) 이 땅에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드보라 사사는 가지고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복음을 메시지로 전달할 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수막에 쓰여 있는 것을 봤는데,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 어느 확원에서 불었던 모양이다. 안다는 것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은 기록하게 되어야 하고,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다. 벰전3:15의 말씀이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복음을 내가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복음소식 암송한 영상들을 보여주니 다 깜짝 놀라더라. 드보라가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4명의 사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말씀을 선포한 사사였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친 군사 영웅이었는데, 드보라는 특별했다.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을 재판하고, 곳곳에 말씀을 전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 최고의 사사가 아니었나 싶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만큼 응답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 교회에 온 손님들이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하고 놀란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다. 여러분은 늘 들으니까 ‘뭐, 꽤 하네’ 하는 정도지만.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뿌리내리는 데까지 갈 것이다. 내리시기 바란다. 드보라는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만큼 가지고 있었다.

(2) 둘째로 드보라는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말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지금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인가. 가나안의 흑암 세력과 싸울 제자가 누구인지 보는 눈이 드보라에게 열린 것이다. 그래서 장군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통해서 전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장군이 되게 했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가운데 만 명의 일꾼을 세워서 군대가 되게 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다. ‘우리는 숫자도 작고 약하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믿음으로 나가지만 하면, 내게 정말 복음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정복하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돈으로, 숫자로 일하지 않는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드보라는 그 작은 지파에서 오히려 일꾼을 찾고 파송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보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의 눈이 열려서 제자를 세우게 되기를 바란다. 현장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어떤 제자를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자립하는 신앙을 가져라. 혼자서도 살아남아라. 이번에 미국에서 15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받았다. 1년 내내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방 현장에서 살아남는다. 다음 해 RCA에 참여하도록 기도하며 돈을 모은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모인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우리가 여행의 피로를 다 잊어버릴 정도였다.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방향을 잡는다. 이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의 성취를 본다. 이번에 영산업인 램트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는데, 전에 그 아이들이 대학생일 때 우리 상임위원들이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었다. 그때는 명문대학을 다니는데도 머리가 노랑고, 바지가 찢어져 있고 그랬었다. ‘이런 아이들이 무슨 엘리트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류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는 제대로 머리를 깎고,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싹 양복 정장을 입고 왔더라. (웃음) 이렇게 입고 질서를 지키도록 봉사를 하는데, 전부가 깍듯하게 질서가 잡혔다. 이 아이들 중에, 나이 30도 안 되었는데 연봉이 20만 달러나 되는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모두 당당하게, RUTC 세울 꿈을 꾸고 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통해 많은 꿈과 미래를 볼 수 있었다. 혼자서도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마지막 때 환난이 오면 지도자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주철우 군과 함께 계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 아닌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므로 형통한 자 되시기 바란다. 내가 힘들어서, 몸이 약해서, 어찌고저찌고 하는 것은 다 핑계다. 요셉 만나면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나? 주님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나?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홀로 세계를 정복하는 신앙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내 모습 이대로라도 주님이 받으

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드보라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다. 점쟁이처럼 맞춘다는 말이 아니다. 말씀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다. 드보라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락 장군도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한다. “반드시 가나안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적의 장군 시스라는 한 여자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된 것이다.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은 미래를 살리는 해답이 된다. 이 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 특히 불신자 현장까지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드보라는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2. 드보라를 통해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단계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는가?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자.

(1) 첫 번째 단계는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단계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역사가 일어난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젊은 목사 아볼로가 확립되지 않았나? 올림픽 지역에서 우리 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통합축 총회장을 지냈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공원에 나와 있다가 만난 것이다. 우리 교인들이 복음 전했는데, “예수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웃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정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신다. 그래서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펴야 한다. 다락방 운동을 해 보라. 장로님들이 다락방을 하나만 해 보라. 한 사람이 세 군데만 다락방을 해 보라. 우리 전부가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새신자, 새가족,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락방을 해 보라.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현장을 쥐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이것이 말씀운동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때만 흑암이 결박된다. 드보라는 말씀만 선포하는 종이였다.

(2) 드보라가 말씀을 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두고 실제 실천할 중직자 요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바락이었다. 말씀을 붙잡고 가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가서 시스라를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다.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일으켜야 하고, 이 말씀이 떨어지면 실천할 중직자 팀이 일어나야 한다. 김동권 목사님 교회에 가서 우리교회 자랑을 한 적이 있다. 10년 전이다. “수입의 십일조를 드리면 교회는 풍성하게 복음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역, 성전 건축 같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빚 없이 교회를 지을 수 있다. 우리교회에서는 이런 분이 있었다.” 김동권 목사님이 되게 부러워했다. 공교롭게도 그 자랑한 후에는 그런 분이 없더라. (웃음) 교회에서 자랑을 안 해서 그랬나 싶어서, 오늘 우리 주창로님이 헌신한 것을 내가 자랑한 것이다. 내년에는 현당을 하도록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나는 안 된다. 못 한다 도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이 떨어지면 이렇게 실천하는 중직자, 교인, 램넌트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8미션의 내용이다. 말씀의 흐름을 깨닫고, 이것이 개인화 되도록 실천 팀을 구성하라고 했다. 중직자들이 여기에 앞장서야 한다. 램넌트들이 그 증거를 보게 되고, 그러면 교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다.

(3) 전도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중직자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주역이 되니까, 이제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일어났다. 1만 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가장 약한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서 일어났다. 전체가 일어나서 영적 전쟁에 뛰어들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전체가 일어나 흑암과 싸우는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다. 전 교인이 일어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전도캠프로 파고들어야 한다. 지역의 우상, 이단, 교권과 싸우는 캠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4)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다.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가 찾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교회가 산꼭대기 슬레이트 건물에 있을 때 전인숙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지도 건축현금을 하고 싶는데 남편이 돈을 안 주네요.” 그래서 본인이 전도를 계속 하셔서 30명 정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현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1만 명의 병사가 나왔지만, 적 시스라의 군대에는 900승의 전차가 있었다. 탱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막강한 부대를 어떻게 이겼겠는가? 학자들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그 모래땅에 비를 내리셔서, 전차 900승이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가 순종하면,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메시지다. 시스라의 군대가 다 죽고 시스라 혼자 살아서 도망쳤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서 숨은 것이다. 헤벨은 없고 그 부인 야일만 있었다. 도망치느라 피곤한 시스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그런데 야일은 숨겨진 제자다. 이스라엘 편이었다. 깊이 잠든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그래서 적의 군대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 영적인 전쟁에 완전히 승리했다는 말이다. 지금 이 부분은 흑암 세력과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숨은 제자 한 명이 찾지면 지역의 흑암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

(5) 그래서 사4:23에,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아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완전 승리하는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진짜 전도운동이다. 2016년에 이런 전도운동이 우리교회를 통해서 전체 지역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자.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혼란에 빠진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도록, 드보라 같은 지도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한 주간, 한 달, 또 다음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없다고, 안 된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하지 마라. 정말 기도해야 한다. 드보라 같은 리더가 일어나야 한다. 교회 각 기관마다, 드보라 같은 전도제자가 리더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찬양대도 75명 세울 것을 목표로 하면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정말 75명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 성도들 중에 찬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하는 분은 다 참여하시기 바란다. 나도 은퇴하면 성가대 가서 베이스 할 것이다. (웃음) 할 수 있으면 왜 안 하겠나. 바락 같은 중직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가는 주역으로 세워져야 한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직자 실천 팀이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시간표를 따라서 이 전도운동의 열매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훈련받지 않은 군대는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다. 2016년에는 전 교인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년에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주역이 될 것인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란다. 신학원 훈련반이라고 그렇게 광고하는데도 안 하는데,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전국 세계에서 전도자로 일어나고 있다. 다시 계획을 세워라. 특히 드보라가 여자 사사 아니었나? 신약 본문의 브리스길라도 여자였다. 여자들도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당회나 제직회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여자 중직자들이 특별히 힘을 얻으시기 바란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현장과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당당히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보라 전도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내가 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주여, 말씀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보는 눈, 미래 보는 눈, 제자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